6 칼빈의 신학에서 주관적 신앙에 관한 연구

추연욱 박사 / 성환중앙교회, 역사신학

1. 서 론

fides qua creditur(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은 칼빈의 신앙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은 주로 '신앙의 내용'(*fides quae creditur*)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cognitio Dei*)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이해에 있어서 이원화(二元化)가 나타났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을 믿는가를 물어야 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1]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과 고백되는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

1. John Calvin, *Calvin ;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nst.* Ⅰ. 2. 이하 *Inst.*로 약(略)함. *Inst.* Ⅰ. 2. 1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tz and E. Reuss. Corpus Reformatorum 2vol., (Brunsvige :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34. 이하 CO로 약(略)함 ; *Inst.* Ⅰ. 2. 2 ; CO 2 : 35.

었다.[2] 즉, *cognitio hominis*의 관점에서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fides qua creditur*)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이해하였다. 이것이 칼빈의 신앙론의 핵심이다.[3]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그것의 내용, 곧 하나님의 선택, 복음과 율법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4] 필러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5] 칼빈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빛들이 모이는 초점이며, 그 초점에서 신앙은 다시 두 방향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와 성화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결합되어 있다.[6] 그것은 '신앙의 행위'로서의 신앙 그 자체가 인간에게 성화의 실현의 한 부분이고 칭의의 한 국면이기 때문이다.[7]

이것에 대한 칼빈의 논증에 따르면, 한 죄인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2. *Inst.* Ⅰ. 1. 1 ; CO 2 : 31.
3. 한철하 박사는 칼빈을 "신앙의 신학자"라고 칭하면서 성경의 기록 목적과 신학 연구의 목적이 신앙에 있다고 강조한다. 김종흡 외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2, 서문 참고. 박해경, "칼빈과 벌콥의 신앙론 비교연구", 「ACTS와 21세기」(양평 : ACTS, 2004), 143. 박해경 교수는 조직신학이 화석화된 교리 나열에 빠지지 않고 살아 있는 신앙의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 박해경, "칼빈의 신앙론", 2003 : http : //www.naver.co.kr/"지식"/"*fides qua creditur*"/"박해경", 5. 이하 박해경, "칼빈의 신앙론"으로 약(略)함. 최홍덕 교수는 "지식을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의 화석화된 신앙의 경험을 예를 들면서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의 조화를 강조한다. 최홍덕, "*fides qua creditur*와 *fides quae creditur*", 「목회자 신문」, 2005. 4. 23.
4. *Inst.* Ⅲ. 2. 1 ; CO 2 : 397.
5. Alfred Göhler, *Calvin's Lehere von der Heiligung*(München : Christliche Kaifer Verlag, 1934), 121.
6. Gehard Müll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Berlin : Walter de Gruyter, 1981) : Calvin, 583.
7. Göhler, 85.

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8] 단 한 번 그러나 모든 세대에 대하여(once for all)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구원 사건은 신앙 안에서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건'이 신앙에 의해 '주관적 실현'이 된다.[9]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곧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10]

*fides qua creditur*에 대한 이와 같은 칼빈의 강조는 우리의 신앙이해에 한 새로운 통찰을 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기(*fides quae creditur* : 객관적 신앙 : 신앙의 내용) 위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fides qua creditur* :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신앙이해의 과제이다.[11]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이 행위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팎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12]

8. *Inst.* Ⅳ. 1. 5 ; CO 2 : 749 ; *Inst.* Ⅲ. 2. 14 ; CO 2 : 410 : "*Unde statuimus fidei notitiam certitudine magis quam apprehensione contineri.*"
9.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Ⅲ,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44.
10. Joshep Haroutunian, *Calvin : Commentari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8), 207-208.
11. 교리사적으로 구원론의 핵심인 칭의와 성화가 혼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세에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했다. 루터는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시켰다. 쯔빙글리와 오캄플라디우스는 칭의가 성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쯔빙글리의 성화론이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도 있다. 마침내 칼빈에게 와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힘 있는 교리로 발전했다. 이것은 칼빈의 위대한 공헌이다.
12. 한철하 교수는 "서양신학의 문제점", 「21세기 인류의 살 길」(양평 : ACTS, 2004), 91-92에서 한국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서양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를 "기독교는 본래 죄인(*homo peccator*)을 불러서 의인(*homo justus*)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 데 중심을 잃어버렸다. 즉, 신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칼빈의 신앙론에서 *fides qua creditur*가 어떠한 신학적 성격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어떻게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행위구원에 빠지지 않으면서 행위의 신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신앙의 기본적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은 인간의 신앙의 현실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논증하려는 것은 칼빈의 신앙론에서 *fides qua creditur*가 *fides quae creditur*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 의미성이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에서 구체화되게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써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고, 프랑스 개혁파의 변호의 무기로 삼고자 하였다.[13]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목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강요」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교리적 목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신실하게 연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행위의 칭의의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인본주의 또는 신앙지상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이 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인데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신현수 교수는 "한국 신학의 새로운 지평 모색", 「복음과 신학」 제3권, 2000, 100에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한 마디로 기독교신앙의 근본 성격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칼빈의 실천적 신앙에 대해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 「한국개혁신학 논문집」, 1997을 참고.

13. François Wendel,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Grand Rapids : Baker Books, 1987), 146.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신앙론 가운데 주관적 신앙의 관점에서 그의 신앙론을 고찰함으로써, 인간 편에서의 신앙의 성격과 장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밝혀진 칼빈의 신앙이해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가운데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극복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믿는다. 연구 자료는 「기독교 강요」, 「주석」, 「설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3. 칼빈의 신앙론의 기본적 성격

칼빈은 「기독교 강요」 1536년판(초판) 제2장에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Faith and Faith in the one God)에 대해 설명한다.[14] 칼빈은 초판에서 이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What the nature of this faith ought to be? ; *Qualis esse haec fides debeat?*)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믿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역사적 신앙'(*fides historica*) 혹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신앙 내용을 믿는 인지적 신앙'(*fides quae creditur*)은 실상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칼빈은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한다.[15]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불신자들과

1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 Ford Lewis Battles, (Grands Rapids : Eerdmans, 1975), 42(*Inst.*(1st ed, 1536), ii, 2). 이하 *Inst.*(1st ed, 1536)로 표기함.

15. *Ibid.*, 42 : "But before proceeding farther, we must be advised that there are two forms of the faith. One is this : if someone believes that God is, he thinks that the history related concerning Christ is true. Such is the judgment we hold on those things which either are narrated as once having taken place, or we ourselves have been to be present. But this is of no importance : thus it is unworthy to be called "faith" ; if anyone boasts of it, let him realize he has it in common with demons {James 2 : 19} , for whom it accomplishes nothing except that they become more frightened, tremble, and are laid low." ; James 2 : 19 : "You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신앙에 관한 것이다. 이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16]

다른 하나의 유형은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참되게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신뢰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 또한 우리가 그를(그리스도) 통해 죄사함과 성화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구원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약속하시는 모든 일들의 핵심 주제(head)이며 총화(sum)다. 이것이 그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표(goal, meta)이며 과녁(target or mark, scopus)이다.[17] 이 두 번째 믿음에 대

believe that God is one ; you do well. Even the demons believe-and shudder."(RSV) ; *"Tu credis quoniam uns ist Deus? Bene facis ; et daemones credunt et contremiscunt!"(Nestle 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et Latine)* ; "σὺ πιστεύεις ὅτι εἷς ἐστιν ὁ θεός, καλῶς ποιεῖς. καὶ τὰ δαιμόνια πιστεύουσιν καὶ φρίσσουσιν."(Nestle 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et Latine*) ; John Calvin,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 Eerdmans, 1975), 42 ; John Calvin, 김동현 역,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서울 : 엘맨, 2002), 43-57. 이하 *Serm.*이라 약(略)함 ;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3), vol. 21, 1Tim. 3 : 6-7. 이후로는 *Comm.*이라 약(略)함 ; cf. Comm. Gen. 3 : 15 ; cf. *Inst.* Ⅰ. 13-19장. cf. 박해경, "칼빈의 신앙론", 5.

16. *Inst.* Ⅲ. 2. 13 ; CO 2 : 408.
17. *Inst.*(1st ed, 1536), ii. 2. "The other is the faith whereby we not only believe that God and Christ are, but also believe in God and Christ, truly acknowledging Him as our God and Christ as our Savior. Now this is not only to adjudge true all that has been written or is said of God and Christ : but to put all hope and trust in one God and Christ, and to be so strengthened by this thought, that we have no doubt about God s will toward us. …… But as we obtain through him forgiveness of sins and sanctification, so also salvation has been given, in order that we may at last be led into God s kingdom, which will be revealed on the last day. And this is indeed the head and almost the sum of all those things which the Lord by his sacred Word offers and promises us. This is the goal set for us in his Scriptures ; this the target he sets."

한 설명은 곧 *fides qua creditur*을 설명하고 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칼빈의 통찰력은 그의 신학 전체를 이해하는 요점(key point)이 된다.

요약하면 칼빈은 '신앙' 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개념 설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구원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와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18] 칼빈에 의하여 정의된 신앙은 한 마디로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신앙의 목표(*scopus fidei*)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칼빈의 신앙론의 특징으로써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1)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신앙

칼빈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신앙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20]

18. 박해경, "칼빈과 바르트의 신앙론 비교 연구", 93.
19.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 T. H. L. Parker, ed. D. W. Torrance (Grand Rapids : Eerdmans, 1965), vol. 11, 에베소서 1 : 14 ; *Comm.* Eph. 1 : 15-20 ; Park, Hae-Kyung, "An Introductory Study of Theological Synopsis",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02. 91.

> 신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21]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 칼빈의 신앙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격적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대상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고 믿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구원의 유일한 길로 계시되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22]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신앙론을 설명하는데 신앙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역사로서의 신앙을 먼저 설명한다.[23] 칼빈이 신앙론 앞에 성령론을 먼저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24] 칼빈의 의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신앙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20. 박해경, "칼빈의 신앙론", 5.
21. *Inst.* Ⅲ. 2. 7 : CO 2 : 403 : "*Nunc iusta fidei definitio nobis constabit, si dicamus esse divinae erga nos benebolentiae firmam certamque cognitionem, quae gratuitae in Christo promissionis veritate fundata, per spiritum sanctum et reveratur mentibus nostris et cordibus obsignstur.*"
22. *Inst.* Ⅲ. 1. 4 : 주관적 신앙을 위한 성령의 역할에 관한 칼빈의 직접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다"(엡 1 : 13 주석)., "신앙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다." 등이 있다.
23. *Inst.* Ⅲ. 1장-성령, 2장-신앙, 3장-중생, 6장부터 10장까지-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구원의 발생의 순서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24.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München : Christliche Kaifer Verlag, 1938), 116 : "신앙은 성령의 고유한 선물이다."

인간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 의한 성령의 역사로부터 최초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25]

칼빈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띠"라고 하였다.[26]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객관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근거한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인간의 주관적 사건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일어나는 곳이 신앙이다. 신앙은 분명히 인간의 결단이며 행위이며 태도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은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한도 죄인이 신앙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영접' 자체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27]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현재화, 구체화, 개인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신앙의 주관적 사건이 가능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28] 신앙은 성령의 활동의 연속적 사건이다.

2) 지식으로서의 신앙

칼빈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다.[29]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한 칼빈의 신학적 특징을 나타내 보여 준

25. *Inst.*, Ⅲ. 2. 34 ; CO 2 : 426-427 : "*Non quod patram viderit quisquam, nisi is qui est a Deo missus. Quemadmodum ergo nisi spiritu Dei tracti, accedere ad Christum nequaquam possumus, ita ubi trahimur, mente et animo evehimur supra nostram ipsorum intelligentiam. Nam ab co illustrata anima novam quasi aciem sumit, qua coelestia mysteria contempletur, quorum splendore ante in se ipsa perstringebatur.*"
26. *Inst.* Ⅲ. 1. 1 ; CO 2 : 393.
27. John. 1 : 12(But to all who received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RSV).
28. *Comm.* John. 3 : 5.
29. *Inst.* Ⅱ. 1. 1.

다.[30]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천적 삶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현실에 관계된 것이다.[31]

칼빈의 신앙이해에서 하나님을 앎으로써 인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아는 관계를 중시한다.[32] 여기서 칼빈의 하나님 인식의 특징적 관점으로써 칼빈의 신앙론에 있어서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방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 준다. 즉,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실천이 나오며, 다시 실천적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된다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보여 준다.[33]

칼빈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34]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부로 오해하거나 인간의 편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 한두 가지에 지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이며 불신의 증거라고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다.[35]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곧 신앙 자체의 문제이기

30.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the His Thought*(Louisville :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81 ; Richard A. Müller, 이은선 역,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서울 : 나눔과 섬김, 2000), 399-434. "제9장 : 존 칼뱅신학에서 지성과 의지의 문제와 관련된 신앙과 지식"을 참고할 수 있다.
31. 이오갑, "칼빈의 경건해석과 현대적 의의", 「말씀과 교회」 23, 1999. 137.
32. *Inst.* Ⅲ, 11, 7 : 칼빈은 신앙을 그릇에 비유한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작용하는 장소가 신앙이라고 보았다. "신앙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도 신앙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진다. 그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독교 강요」 집필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33. 이오갑, 138.
34. *Inst.* Ⅰ. 2. 1 ; CO 2 : 34 : "*Neque enim Deum, proprie loquendo, cognosci dicemus ubi nulla est religio nec pietas.*" Parker, 82.
35. Joshep Haroutunian, *Calvin : Commentari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8), 126.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 함은 인간의 감각적 지식이나 이성적 지식이나 윤리적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notitia fidei*)이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고백이 나온다. 주관적 행위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며,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다. 칼빈은 "열과 빛이 없는데도 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한다.[36] 칼빈의 이중 지식은 그의 신학의 독자성을 나타내 보여 준다. 이중지식의 토대 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물을 수 있다. 신앙을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37]

3)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칼빈의 사상은 곧 칼빈의 신학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학임을 말해 준다. 칼빈의 신앙론의 특징은 신앙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38] 이것이 이중지식(*duplex cognitio*)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9] 그의 이중지식론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인간 자신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40]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이 관계에서 신앙의 열매로써 경건한 삶

36. *Comm.* Rom. 10 : 10.
37. *Inst.* Ⅲ. 2. 8.
38. Parker, 81.
39.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5), 151.
40. *Inst.* Ⅰ. 1-2장 참고. 「기독교 강요」 1권 1장부터 시작하는 체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Ⅰ권 제목-"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장 1절 제목-"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1장 2절 제목-"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2장 제목-"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체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삶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나타나고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41] 이것이 칼빈의 신학의 독특한 점이며, 항상 새로운 결단력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힘으로 작용한다.[42]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그 어떤 인간적인 (종교)행위도 '경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산 경험으로 되는 것이지 공허하며 과장된 사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다 잘못된 '미친 발상'이며[43] 하나님을 악하게 모독하는 행위임을 역설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과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칼빈의 신앙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 *fides qua creditur*의 기본개념

1) *fides qua creditur*의 정의

칼빈은 「기독교 강요」 1536년판 제2장에서 *fides qua creditur*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칼빈이 주장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실천적 믿음이다. 칼빈의 주관적 신앙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설명되었다. 즉, 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정통주의 신학은 신앙의 내용을 지식

41. Parker, 81.

42. *Inst.* Ⅰ. 2. 1 :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 *Inst.* Ⅰ. 2. 2 :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3. CO 47 : 86 ; *Comm.* John, 4 : 20 : "*Sed postea longius erupit ac sine modo grassatus est furor.*" ; CO 2 : 432 : "*Quid enim tradunt Scholastici caritatem fide ac spe priorem esse, merum est deliramentum ;*

(*notitia*, 앎)과 승인(*assensus*)과 신뢰(*fiducia*)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또 신앙의 방법에 있어서 주관적 신앙(*fides qua creditur*)과 객관적 신앙(*fides quae creditur*)으로 구분한다.[44] 이 구분은 칼빈의 신앙론에 나타난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fides qua creditur*)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신앙의 주관적 측면으로써 *fides qua creditur*는 '믿어지는 것을 통한 신앙'(*Glaube durch den geglubt wird*)이다. 이것은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이며 하나님께 신뢰하는 순종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써의 신앙을 말한다. *fides qua creditur*는 '신앙의 행위'(Glubensakt)로써 믿는 사람들의 심령(영혼)에 강조점이 있다.[4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이다. 이 신앙은 현실 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이다.[46]

44. 주관적 신앙은 '행위의 신앙'을 말한다. '그것을 통하여 신앙되는 신앙'(신앙의 행위) 혹은 (각자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신앙(*fides subjectiva s. qua creditur s. specialis*)을 말한다. 객관적 신앙은 신앙되는 신앙(신앙의 내용) 혹은 일반적 신앙(*fides objectiva s. quae creditur s. generalis*)을 말한다. 여기에서 객관적 신앙은 *notitia*와 *assensus*에 해당하며, 주관적 신앙은 *fiducia*에 해당한다. 정통주의 신학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지(*notitia*) 않고서 승인(*assensus*)할 수 없으며, 승인하지 않고서는 신뢰할(*fiducia*)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통주의 신학은 앎(*notitia*)의 단계를 중시한다. 신앙은 무엇을 신앙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신뢰(*fiducia*)의 단계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신뢰의 단계에서 비로소 각 사람 자신의 구원이 된다. 김균진, 152 재인용.

45. 최홍덕,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 「목회자 신문」, 2005. 4. 23.

46. *Inst.* Ⅰ. 2. 2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뿐 어떤 공상적인 신(神)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흡 외, 「기독교 강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2), 86 ; CO 2 : 35 : "*Quia bonorum omnium intelligit esse autorem, si quid premit, si quid deest, mox se recipit in eius praesididum, opem ab eo exspectans.*" *Comm.* 1Thess. 4 : 3 : "For this end ye are Christians- this the gospel aims at- that ye may sanctify yourselves to God." *Comm* 1Thess. 4 : 7 : "that the will of God is our sanctification."

칼빈은 신앙의 내용으로서의 신앙에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의 응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관적 신앙은 객관적 신앙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47]

2) *fides quae creditur*와의 관계

*fides quae creditur*는 신앙의 객관적 측면으로써 '믿어지는 신앙'(*Glaube welcher geglaubt wird*)이며 '믿어지는 신앙의 내용'(Glaubensinhalt)이다. 이 신앙은 '믿어지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fides quae creditur*는 *fides qua creditur*의 대상이 된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주관적) 신앙 안에서(객관적) 계시된다고 하였다.[48] 칼빈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신앙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주관적 신앙이 인간의 행위 구원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주관적 신앙은 객관적 신앙에 대한 지식적 이해를 포함한다. 객관적 신앙이 주관적 신앙이 될 때 인간 편에서의 지식(*notitia*)과 신뢰(*fiducia*)와 동의(*assensus*)로 나타난다.

칼빈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은 둘 다 필수 불가결한 동시에, 또한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 신앙이 되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열광주의 혹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며, 반대로 주관적 신앙이 되려고 하지 않는 객관적 신앙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교리만 답습하는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

47. Niesel, 133.

48.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25-26 : "루터는 우리가 신앙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소지가 오직 우리 바깥에 있다고 믿었다. 즉, 그리스도가 성취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죄의 용서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확고히 붙든다고 하였다. 루터는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새로운 관계 속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성령을 통하여 복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합은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 준다."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적 일치의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49]

신앙의 객관적 측면이 칭의며, 주관적 측면이 성화다. 이 둘은 항상 함께 존재하며 시간적으로 동시적 사건이다.[50]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혼동하지 않았고 분리시키지 않았다.[51] 성화론은 칼빈의 신학의 특징이며 신앙론의 장점이다.

3) 칼빈의 신학에서 *fides qua creditur*의 중요성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개혁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혁가들의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선행을 무시한다는 공격을 받았다. 신앙지상주의에 빠져 도덕폐기론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칼빈의 성화론은 행위의 의로 오해받을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명료하게 변증하면서 자신의 성화론을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논리적으로 칭의를 성화보다 먼저 취급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회개론(성화)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다루었다. 칼빈이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다룬 것이 그의 신학적 특징이 된다.[52]

49. 최홍덕, 「목회자신문」, 2005. 4. 23.

50. *Inst.* Ⅲ. 16. 1 ; 김종흡 외 「기독교 강요」(중), 340 : "그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한 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 CO 1 : 586 : "*Quam ergo haec beneficia, nonnisi se ipsum erogando, fruenda nobis Dominus consedat, utrumque simul largitur : alterum nunquam sine altero. Ita liquet, quam verum sit nos non sine operibus, neque tamen per opera iustificari ; quoniam in Christi participatione, qua iustificamur, non minus sanctificatio continetur quam iustitia.*" Göhler, 85-86.

51. Göhler, 84 ; *Inst.* Ⅲ. 16. 1.

52. Parker, 85.

칼빈의 신학이 이신칭의의 교리 위에서 성화론이라는 특징을 가졌던 만큼 공격과 염려를 동시에 받았다. 루터교는 성화를 칭의와의 관계로 설명하는 칼빈의 신학이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을 용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물론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로서 루터에게 있어서 보다 로마 가톨릭신학의 칭의와 행위를 혼동하는 잘못된 구원관과 혼동되는 것이 두려워서 성화를 주장하지 못할 이유는 적은 형편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칼빈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성화론이 포함된 자신의 신학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고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하였다.[53]

결국 칼빈의 *fides qua creditur*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형식주의와 신비주의 양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였다. 개인에게 분명한 신앙고백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실천적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세상 변혁의 사명감을 고취하였다. 칼빈의 신앙론에서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원화를 극복하면서, 이단을 분별해 내는 탁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53. 고광필, "칼빈의 이중은혜의 논리", 「칼빈과 개혁신학」(광신대학교, 1999), 214-215 :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구별지은 것은 종교개혁의 공헌이며, 특히 칼빈의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교리를 혼동하였다. 현대에 와서 감리교회는 완전성화를 주장함으로써 성화의 교리를 혼동하고 있다. 이 점에서 루터의 *Simul Iustus et pecator*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화를 성령세례와 회심 후에 오는 다른 경험으로 이해한다. 칼빈의 성화론은 인간과 성령의 협력사역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이다. 칼빈에 의하면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죄의 용서이며,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이지만, 성화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두 축이다."

5. *fides qua creditur*와 칭의

1) 객관적 칭의(稱義)

칼빈에게 있어서 객관적 신앙이 칭의이고 주관적 신앙이 성화다. 칼빈의 성화론은 항상 칭의론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54]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하나로서 양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관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칼빈의 신학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55]

성화는 칭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56] 한 분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은혜(*deux principales graces*)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나타날 두 가지 효과가 우리 안에 이뤄질 것도 믿는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은혜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54. *Inst.* Ⅲ. 16. 2 ; *Comm.* 2Tim. 1 : 9.
55. Wendel, 244.
56. *Inst.* Ⅲ. 17. 4 ; CO 2 : 592 : "*Verum scripturas nullo modo conciliare possis, nisi duplicem hominis apud Deum acceptionem observes.*"
Inst. Ⅲ. 17. 5 ; CO 2 : 593-594 : "*qua post suam vocationem Deo fideles approbantur, operum quoque respectu.*"
Comm. 1Pet. 2 : 5 : "And it ought to kindle the more the ardour of our efforts, when we hear that God deals to indulgently with us, that in Christ he sets a value on our works, which in themselves deserve nothing."

또 한 가지 은혜는 성화의 은혜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구원의 확신(일시적, 현세적, 인간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파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한국의 구원파들은 신앙지상주의자(信仰至上主義者)들이다. 자신들이 제일 잘 믿는 줄 안다. 칭의와 성화의 이중의 은혜를 알지 못한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이단이며, 신앙무능력자들이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도무지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 덕(德)이 되지 못하는 신앙인이 생기는 현상도 같은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펠라기안들은 신인협동(信人協同)을 믿는 이단이다.[57] 이미 어거스틴과의 논쟁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지금도 행위구원적인 신앙관을 가진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펠라기안은 칭의와 성화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이단이다. 칭의가 논리적으로는 성화에 앞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사건의 성립결과를 놓고 볼 때 구별되는 두 개의 동시적 사건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관계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된다. 칭의에서는 행위가 배제되지만 성화에서는 행위가 요구되는데, 이 두 가지 은혜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도덕적 선행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칼빈의 대적자들은 선택교리가 선행을 위한 노력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칼빈은 선택이 인간에게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명령한다고 했다.[58] 왜냐하면 선택의 목표가

57.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주장했다. Bernhard Lohse, *Epochen der Dogmen Geschichte*, 구영철 역, 「기독교 교리사」(서울 : 컨콜디아사, 2000), 144. 칼빈은 어거스틴을 계승하였다 ; *Inst.* Ⅱ, 3, 6 : "사람이 선을 행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사업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58. Göhler, 121.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선행이기 때문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결과이므로 선택과 성화는 전혀 모순이 없다. 칼빈은 이중의 은혜가 항상 함께 역사(役事)하기 때문에 칭의를 설명하는 곳에서 성화를 말하고, 성화를 설명하는 곳에서 칭의를 언급했다.

2) 객관적 · 주관적 칭의에서 신앙의 역할

칭의와 성화 사이의 근본적 중개자는 신앙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빛들이 모이는 초점이며, 그 초점에서 신앙은 다시 두 방향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칭의와 성화가 그것이다.[59]

신앙은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이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칭의와 성화는 신앙의 열매다. 신앙의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관적 신앙(*fides qua creditur*)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은 하나로 굳어진 교리가 아니다.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질문할 때, 인간 편에서는 주관적인 신앙고백을 요구받게 된다. 이 주관적인 신앙고백이 순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신앙의 효과를 요청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점에서 칼빈의 신앙론의 역동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의 관점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cognitio Hominis*)을 볼 때 '확고부동하면서' 단조로운 신앙론을 깨닫

59. *Inst.* Ⅲ. 16. 1 ; CO 2 : 586 : 칼빈은 공격자들에게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된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가지고 대답하고 있다. "*deinde nimis facile ad iustitiam iter sternere, quum in gratuita peccatorum remissione ipsam iacere docemus, et hac illecebra hominis suapte sponte plus nimio proclives, ad peccandum allicere …… Ita liquet quam verum sit nos non sine operibus, neque tamen per opera iustificari ; quoniam in Christi participatione, qua iustificamur, non minus sanctificatio continetur quam iustitia.*"

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cognitio hominis*의 관점에서 *cognitio Dei*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는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묻는다.

6. 결 론

역사적으로 신앙지상주의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의 문제와 행위구원을 믿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신앙을 빙자하는 종교인들에 관한 문제들이 있어 왔다.[60]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의 혼돈을 목격하면서,

60. 칼빈의 주관적 신앙관 관련하여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raham Kuyper, 김기찬 역, 「칼빈주의 강연」(서울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58-60 ; 77 : (요약)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에 나타나는 주관적 신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주관적 신앙의 탁월성을 명쾌하게 설파한다. 즉, 인간이 이기적 목적을 위해 설정한 신은 인간 자신이 만든 신앙의 내용으로서의 신은 존재하지만, 신의 요구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여 인간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버림을 받는다. 이런 종교는 기근과 역병의 때에 번성하며,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 가운데 번성하며, 비천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 퍼진다. 그러나 이 종교는 번성할 때에 약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계몽된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이것이 이기주의 종교의 최후다. 이것은 초기 모든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진행된 종교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칼빈주의의 입장은 반대다. 칼빈주의는 종교가 인간적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궁핍할 때 도움을 구하고 관능적 열정 앞에 종교적 승화를 구하려는 우리의 경향에 의하여 종교가 신장되고 권장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을 논박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는 이 모든 것을 종교가 산출한 열매로 혹은 종교가 제공하는 버팀목으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들을 종교가 존재할 이유로 높이기를 거절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가시적인 조직에 기초하거나 기대지 않는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 가운데 발견된다. 이 점에서 루터교회도 극복하지 못했던 지상적 잔재(로마 가톨릭교회의

방황하는 무리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지도할 신학적 대안의 제시의 의무를 느껴야 마땅하다.[61]

지금까지 본 논문은 *fides qua creditur*가 칼빈의 신학에서 어떠한 중요성이 있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폈다. 주관적 행위로서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가지는가?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행위구원에 빠지지 않으면서 행위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문제들이었다. 전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의 신앙론에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의 강조는 칼빈의 신앙론에서 항상 초월적인 신앙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편에서의 신앙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는 특징을 보여 준다.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 신앙(*fides qua creditur*)을 가능케 하며 칭의와 성화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인간의 신앙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인간 안에 형성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성령의 역사다. 따라서 칭의와 함께 나타나는 인간의 선한 행위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칼빈의 주관적 신앙(*fides qua creditur*)은 칭의와 함께 성화를 강조함으로써 중세의 타락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공격을 효과적으

시제주의, 국가와 결합된 교회, 감독파 교회의 감독제도, 루터교회의 국가교회 형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61.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 「한국개혁신학 논문집」, 1997.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현실과 타협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로 방어할 수 있었다. 오직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구원관이 결코 행위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셋째, 칼빈의 *fides qua creditur*의 핵심은 성화론이다. 인간은 *fides qua creditur*의 관점에서 *cognitio hominis*를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묻는다. 이 물음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화가 인간 내부와 그와 관련된 세상 가운데서 시작된다. 성화의 근거가 하나님의 요구에 근거하므로 인간의 공로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fides qua creditur*가 *fides quae creditur*에 근거하므로 결코 인간의 행위 구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이해는 신앙지상주의 또는 율법폐기 신앙, 그리고 펠라기안주의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칼빈의 신학에서 *fides qua creditur*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인격적 반응이며,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끄는 칼빈의 중요한 신앙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Calvinus. Ioannis.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tz, and E. Reuss. 59 vols., Corpus Reformatorum ; Brunsvige :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_____.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Inst.*, 1536, 1539-1554).

_____.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Inst.*, 1559).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Grad Rapids : Collins, 1986.

_____. *John Calvin's Sermon on Ephesians.*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7.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Ⅲ.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박해경. 「칼빈의 신론」. 서울 : (주)이컴비즈넷, 200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2005.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Göhler, A. *Calvin's Lehere von der Heiligung.* München : Christliche Kaifer Verlag, 1934.

Joshep Haroutunian, *Calvin : Commentari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8.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 Christiliche Kaifer Verlag. 1938.

Parker, T. H. L. *John Calvin* : Biography. London : J. M. Dent & Son, 1975.

_____. *Calvin-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ndon : Geoffrey Chapman, 1995.

Wendel, François.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michigan : Baker Books in Grand Rapids, 1987.

논 문

고광필. "칼빈의 이중은혜의 논리", 「칼빈과 개혁신학」, 1999.

박해경. "칼빈의 신앙론", 2003.

Park, Hae-Kyung. "An Introductory Study of Theological Synopsis",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Asia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02.

유광웅. "성화론", 「칼빈신학과 목회」, 1999.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 기독교 강요를 중심하여", 「복음과 신학」 제1권, 1996.
이승구. "칼빈의 신앙이해에 대한 연구", 「기독교 신학연구」 제7집, 2000.
이오갑. "칼빈의 경건해석과 현대적 의의", 「말씀과 교회」 23, 1999.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 「한국개혁신학 논문집」, 1997.
최윤배. "부처와 깔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논단」, 1999.
최홍덕.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 「목회자 신문」, 2005. 4. 23.
한철하. "서양신학의 문제점",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 ACTS, 2004.